ASSOCIATION **CREATION TRUTH** Volume 16 Number 10 ● 1 0 2008 **NEWSLETTER**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 TEL 213 381 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

FOR



창조자는 그 분의 창조역사를 성경에 기록하셨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기록을 무시 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그들은 과거의 창조 사건들을 자연법칙만으로 설명하려는 세상의 학자들을 기록된 역사와 항상 있는 목격자(하나님)의 증언들보다 더 믿었기 때문에 성경을



거부하게되었다.

만일 역사가들이 - 그들의 사상(세계관)이 전쟁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류역사에 세계대전이 결코 없었다고하면서 기록된 역사를 부정한다면 당신은 어쩌겠는가? 이런 접근이 합리적인가? 마찬가지로 오늘날 자연주의자들은 '자연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는 철학을 믿기 때문에, 초자연적 창조의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자연주의 철학은 자연 이상의 어느 것도 허락지 않기 때문에 자연주의자들은 우주는 우주 내에 진행중인 일련의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겼다고 주장한다. 바로 빅뱅(대폭발) 이론은 이 같은 기본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빅뱅모델은 우주 내에 현재 진행중인 과정으로 우주의 형성을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별들과 행성들과 은하들은 모두 현재 가동 중인 자연 법칙으로 우연히 형성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것이 합리적이며 논리에 맞을까?

한 예를 들어 보자. 손전등(flash light)은 전기에너지를 빛에너지로 바꾸는 기구이다. 따라서 자연주의적 관점으로 보면 현재 진행되는 과정으로 손전등이 만들졌어야 한다. 즉 전기에너지를 빛에너지로 바꾸는 변환과정이 손전등을 우연히 생산해 낸 것이어야 한다. 이런 접근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을까? 전적으로 아니다! 손전등은 전혀 다른 과정으로 만들어 졌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주내에 진행중인 일련의 자연과정에 의해서 우주가 생겨났다고 결론지을 수 없다.

그럼에도 우주를 창조하는데 하나님이 빅뱅을 포함한 일련의 자연적인 과정을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많은 크리스천들이 수용하고 있다. 단지 하나님이 이과정들을 지휘하였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들과 행성들이 수십억년에 걸쳐서 느린 자연과정으로 형성되었다는 무신론자들의 주장에 동의한다. 불행히도 그같은 견해들은 창조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말씀대로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자연주의 믿음으로 희석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지구를 인류의 거주지로 주셨다고 말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의 선한 관리자라는 것이다. 오늘날 이 우주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 해하는 과학법칙 하에 유지되고 있음을 안다. 이는 하나님은 그가 주신 "거주명 령"의 약속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일 것이다.

여러 경우에 우리는 우주의 거동을 예측할 수 있는 물리법칙으로 방정식을 세울수 있다. 이 수학적 표현들은 우주를 지탱하는 하나님의 솜씨를 표현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어떤 수식이나 자연법칙으로도 어떻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는지 창조사건을 묘사할 수는 없다. 손전등의 예와 같이 우주는 오늘 날 가동되는 동일한 과정들이나 법칙으로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가 창조를 완료하셨을 때 제 7일 작동모드(Mode of operation)를 바꾸셨다고 창세기 (2:2)에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창조주간에 하셨던 동일한 방법으로 더 이상 일하시지 않는다. 그 분은 더 이상 새로운 동물들, 새로운 식물들, 새로운 별들을 창조하지 않으신다. 창조는 초자연적인 이벤트이며 오늘날의 자연법칙으로 표현될 수 없는 것이다.

빅뱅은 성경에 기술된 초자연적인 창조와 정 반대이다. 성경은 모든 것을 6일 동안 창조(출20:11)하고 제 7일은 안식하셨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일주일에 대한 기원이다(출20:8). 반면에 빅뱅모델은 우주와 지구가 수십억년에 걸쳐서 서서히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지구를 먼저 창조하시고 3일 후인 제 4일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였다. 한편 빅뱅은 지구보다 수십억년 전에 별들이 먼저 존재했다고 주장한다. 성경은 지구가 물로부터 형성(벧후3:5, 창1:2-9, 시24:2)되었다고 말하지만 세상은 지구가 녹아떨어진 덩어리 (molten blob)로 시작되었다고 가르친다. 따라서 자연주의 빅뱅철학은 창세기와 조화를 이룰 수 없으며 근본적으로 성경말씀을 부정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빅뱅의 과학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기사가 연 재될 예정입니다.

참조: "God's Creation?" Answers, Vol. 3 No.1 Jan.-Mar. 2008.



이동용 중부지부장 항공기계 공학박사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첫 1:16)

화론은 자신도 모르게 피조물인 지구를 우리의 어머니(mother earth)라고 부르게 했다. 이 것은 지구가 우리를 만들게 했다는 진화론적 사고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빅뱅과 같은 진화론적 천문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우주의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로 전락시켜서 마침내 어머니 우주(mother universe)로 확장시켰다. 즉 생명을 잉태케 한 지구뿐 아니라 우주의 수많은 별들도 지구와 똑같은 진화과정을 통해 외계 생명체가 잉태했을 것이라는 상상까지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아직 물이 발견된 행성도 없으며, 실제로 물이 발견되었다 할지라도 그 물에서 생명체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완전히 진화론에서 나온 상상일 뿐이다. 어떤 행성에 물이 있었던(!) 흔적이라는 증거만 있으면 언론은 여지없이 생명 탄생의 실마리를 찾을 것 같다고 말한다. 그러나 조금만 제대로 본다면 이러한 생각은 전적으로 진화론적 사고에 젖어서 무의식 중에 나온 발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물이 아무리 풍부하다고 해도 거기에 생명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어떤 별에 물이 충분히 많을 뿐 아니라 지구와 똑같은 조건의 대기와 땅을 갖춘 별이 발견됐다.

고 할지라도 생명 탄생과는 무관하다. 과학자가 해왔던 관찰과 실험은 언제나 생명은 생명에서만 나온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외계생명체에 관한 것은 과학적 증 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외계인을 보고 있는 진화론적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시36:9)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은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확실한 이해를 보여준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요11:25)",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요14:6)"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골3:4)의 말씀은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며 그분에게서 생명이 나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구 밖에서 물을 찾고 있다느니, 물이 흘렀던 흔적인 것 같다든지 하는 표현을 보고 동요될 필요가 전혀 없다. 그어떤 것도 생명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볼 수도 없는 먼 곳에 별을 만드신 것이나, 그리고 그 넓은 우주에 달랑 지구에만 생명을 창조하신 것은 공간을 너무 낭비하신 것이 아닐까?" 라고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더 발달하여 더 먼 곳에 있는 별도 관찰하게 될 것이며 거기에도 무한하신 분이 창조하신 것들로 차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바로 창조자의 능력을 그 하늘에 담으셨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과 광대함을 인정하면 이는 곧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로 향하게 한다. 하나님의 위치가 높아지면 따라서 자신의 형상인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다. 이는 정말로 기막히 창조자의 메시지가 아닌가!

"엄청나게 광대한 우주, 그 속에 있는 수많은 은하계, 그 중에 한 은하계, 그 안에 점과 같은 태양계, 그리고 먼지도 안 되는 지구... 그리고 나와 너... 이런 먼지 티끌만도 못한 우리끼리 사이 좋게 지내자"와 같은 진화론적 표현을 자주 접한다. 그러나 이 표현은 언뜻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태도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아주 잔인한 말이다. 왜냐하면 서로가 사이 좋을 때는 괜찮지만, 기분이 언짢을 때는 한 생명이 무시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해칠지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미미한 존재가 되기때문이다.

우주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들과 다르다. 그 창조주의 능력과 더불어 서로를 귀중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보이는 것중에 아주 작은 하나가 아니라 이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이다. 그러므로 광활한 우주는 결코 낭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전하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표현인 것이다.

언뜻 보면 외계 생명체를 인정하는 것이 상상력을 넓히고 자신을 관대히 만드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이 거하도록 창조된 지구를(사 45:18) 수 많은 별 중

에 하나로 전략시킬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자연의 부속품으로 격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결국에 하나님의 모든 초점이 지구에 있는 자신의 형상인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약화시켜버린다. 외계인을 상상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생명체를 상상하고 스스로 창조자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인간 욕심의 한 단면임을 알 수 있다.



이재만 창조과학 선교회 부회장



화론적인 언어학자들은 한 언어에서 우연히 새로운 언어가 생겼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이론은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 바벨 사건은 갑자기 등장한 고대 문명뿐 아니라 한 언어에서 수십 개의 언어 계열들이 어떻게 갑자기 생겨 났는 지에 대한 유일한 설명 이기도 하다. 노아 홍수의 역사가 사실임을 보여 주는 수백 가지의 전설이 세계 곳곳에서 발견 되듯이 한 언어만 사용하고 있던 시절이 있었다는 전설들도 세계 도처에서 수집 된다.

북미: 캘리포니아의 Maidu 인디언 전설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 했는데 특별한 화제(burning ceremony)를 준비하는 중에 어느 날 밤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부부들은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전설에 따르면신이 모든 언어를 말할 줄 아는 Kuksu라는 지도자에게 모든 족속을 모이게 하고 각각의 방언으로 동물들의 이름을 가르쳐 주고 각 족속들에게 다른 곳으로 떠나가 살도록 그 장소를 지정해 주었다고 한다.

중미: 아즈텍 전설은, "인류가 홍수로 쓸려버렸는데 Coxcoxtli라는 한 남자와 Xochiquetzal이라는 한 여자는 배로 피했고 Colhuacan이라는 산에 도달 하였다. 그들은 아이들을 많이 낳았는데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와 언어를 선물하자 말을 하게 되었는데 말이 서로 아주 달라서 그 아이들은 서로 통하지가 않았다." 과테말라의 Quiches란 종족은, "사람들이 많아져 옛 집을 떠나 Tulan이란 곳으로 이주를 했는데 거기서 언어가 바뀌어 사람들은 세계 각지로 새로운 거처를 찾아 떠났고 그 결과 사람들은 이제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

다"고한다.

아프리카·/중동/유럽: 동부 아프리카의 Wa-Sania족의 전설에 의하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옛 족속들은 한 언어밖에 몰랐는데 심각한 기근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미쳐 방황하며 이상한 말을 지꺼리며 사방으로 퍼지게 되어 다른 언어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수메르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한 언어를 말했다고 믿었다. 그리스의 전설은, "오랜세대 동안 사람들은 제우스의 통치하에 도시도 만들지 않고, 법도 없이 한 언어를 쓰면서 평화롭게 살았다. 마침내 헤르메스가 다양 말을 소개했고 인류는 분리된 나라들로 나뉘었다."

아시아: 인도 북동부의 Mikir족은, "램의 후손들이 지구에 만족하지 못해 하늘을 정복할 욕망을 갖게 되어 탑을 쌓기시작했다. 그 탑이 높이 높이 더 높이 올라가자 신들과 악령들은 이미 지구의 주인이 된 이 거인들이 하늘의 주인들이 될까 걱정을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의 언어를 뒤섞어버리고 세상의 네 귀퉁이로 흩어 버렸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미얀마의 Gaikho족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 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神愛世人,甚至將他的獨生子賜給他們,叫一切信他的, 不至滅亡,反得永生。 Çünki Allah dünyanı elə sevdi ki, vahid Oğ;lunu ona verdi; bunu ona görə etdi ki, Ona iman edənlərin heç biri həlak olmasın, hamısını n əbədi həyatı olsun. 神は、実に、そのひとり子をお与え になったほどに、世を愛された。それは御子を信じる者が、 ひとりとして滅びることなく、永遠のいのちを持つためである。 Ou{tw" ga;r hjgavphsen oJ qeo;" to;n kovsmon, w{s te to;n uiJo;n to;n monogenh' e[dwken, i{na pa'" oJ pisteuvwn eij" aujto;n mh; ajpovlhtai ajll! e[ch/ zwh; n aijwvnion.

은, "Pan-Dan-man 시대에 사람들은 하늘에 닿을 탑을 건설하기로 하였다. 그 탑이 절반 정도 되었을 때 신이 내려와 사람들의 언어를 뒤섞어버려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었고 Gaikho족의 선조인 Than-mau-rai는 8명의 우두머리들을 데리고 서쪽으로 와 Sitang 분지에 정착하였다."

남태평양: Hao섬 사람들은, "Rata와 세 아들이 대 홍수에서 살아 남았다. 그들은 건축물을 세워 하늘에 닿을 수 있게 하여 창조 신 Vatea를 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화가 난 신은 그 건축자들을 좇아버렸고 그 건축물을 파괴하고 그들의 언어를 바꾸어버려 그들이 다양한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전한다.

한 조상을 가진 인류가 문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완전한 언어를 가지고 있고, 세계 넓은 곳에

산재하는 언어에 대한 위의 전승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성경에 기록 된 바벨 사건이 언어의 혼란을 경험한 실제 사건 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게 한다. "여호와께서 거 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하셨음이라." 역사에 "불쑥" 튀 어 나온 문화와 언어들은 바로 바벨 사건의 증거들인 것이 다. 다음 호에 계속



최우성 서부지부장, 생리학박사

ACT NEWS



창조과학 탐사여행 | 학교 | 원거리 사역

5차 유학생 탐사여행

유학생 탐사여행이 지난 8월로 벌써 다섯 회를 넘겼습니다. 겨울에는 그랜드캐년, 세도나, 규화목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성경역사와 세계관, 그리고 여름에는 그랜드캐년, 자이언캐년, 브라이스캐년을 중심으로 노아홍수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됩니다. 유학생 탐사여행은 어떤 탐사여행보다 진지하고 활 발합니다. 그만큼 자신이 왜 믿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배웠



던 진화론적 세계관과의 갈등의 표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질문들 그리고 이해와 감동... 짧은 단어로는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 감동을 간증(이번 호)을 통해 함께 느끼시기 바랍니다. 유학생탐사여행은 1년에 두 차례 (겨울과 여름) 출발하며, 서울온누리교회 유학생교회 선교회와 얼바인 온누리교회의 전폭적인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교회에 감사 드립니다.

6차 유학생 탐사여행 모집

오는 12월 29-31일(월-수)에 6차 유학생 탐사여행을 출발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창조과학선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터헝가 소망장로교회

개척교회지만 담임목사님(성준기)과 함께 전 교인이 수련회로 탐사여행을 참석했습니다. 교회창립부터 성경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교회의 규모에 관계없이 탐사여행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귀한 예를 주었습니다.

온누리교회(ANC) GM 장애우 공동체

장애인 가족, 교사와 도우미들 44명이 2박3일간 모하비 사막, 그랜드캐년, 선셋 크레이터를 돌면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하신 일들을 돌아 보았습니다. 특별히 장애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 세상이 좋았다는 사실을 더욱 실감하며 구원자 예수님 안에서 미래를 기대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여행은 최우성 선교사 단독으로 탐사여행을 인도한 첫 번째 여행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역자들이 더 나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누리교회(ANC) 싱글 공동체

온누리교회(ANC)는 올해만 세 번째 떠났던 탐사여행이었습니다. 교회 내의 한 공동 체에서 탐사여행을 떠나는 특별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며 이중 언어로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David 조 집사님의 탁월한 통역으로 2세들을 잘 이끌었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정체성인 "하나님의 형상"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귀한 간 증들은 부모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뉴홉 채플: "Ark for Kids" 와 함께한 탐사여행

뉴홉 채플은 자녀들 프로그램인 "Ark for Kids"와 부모님 탐사여행을 동시에 진행했던 첫 시도였습니다. 빡빡한 3일간의 일정을 잘 소화하며 가족들이 함께 탐사여행을 두 개 프로그램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얻게 된 귀한 기회였습니다.



선한목자 장로교회: 청년 수련회를 탐사여행으로

선한목자 장로교회는 두 번째로 교회 단위로 참석했습니다. 청년부를 주축으로 장년들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많은 기도로 준비했던 청년들의 기대가 드러난 탐사여행이었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닌, 바로 사실"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간증들이 나왔습니다.

3차 일본인 탐사여행

지난 8월 19-22일 나흘간 3차 일본인 탐사여행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House of Siloam에서 주최하였으며, 통역은 미야가와 사모님이 맡았습니다. 그 동안 일본인 탐사여행은



외국인들을 위한 선교의 방법으로 탐사여행이 훌륭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줘 왔습니다. 참석자들은 믿음의 근본적인 이유가 "사실"에 근거함을 확신했으며 자신들이 출석하는 교회의 일본인 목사님도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나누었습니다. 아울러 빙하시대 탐사여행도 이어졌으면 하는 기대도 나왔습니다.

4차 일본인 탐사여행 출발

오는 11월 10-18일 한주간 일본인 탐사여행을 출발합니다. 이번 탐사여행은 일본 교계대표와 기독교인 CEO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탐사여행이 일본 선교의 도구로서 가치가 드러나 일본 교계와 일본 CGN-TV와 함께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탐사여

행의 여부에 따라 앞으로 일본인들에 대한 탐사여행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자주 참석<mark>할지 결</mark> 정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인 탐사여행을 위한 기도의 참여를 부탁합니다.

LA온누리(Onnuri)교회 Yosemite 빙하시대 탐사여행

지난 8월 30일 - 9월 1일 LA 온누리교회가 Yosemite 빙하시대 탐사여행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빙하시대로는 Death Valley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요세미티로 3일간 탐사여행은 처음입니다. Yesemite 국립공원 뿐 아니라, Sequoia 국립공원, Mono Lake, Panum Crater, Alabama Hills, Mt. Whitney 등 주옥 같은 곳을 지나며 과학과 성경을 통하여 빙하시대를 이해했



습니다. Yosemite와 Death Valley를 중심으로 노아홍수에 이어서 일어난 빙하시대 탐사여행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귀하게 사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빙하시대 탐사여행 출발

오는 10월 13-16일 나흘간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에서는 빙하시대 탐사여행을 떠납니다. 최근에 빙하시대 탐사여행의 횟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빙하시대는 Yesemite 국립공원, 395번 도로, Death Valley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노아홍수 말기부터 빙하시대까지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창조과학학교

지난 11월에 200여 명이 참석한 창조과학학교에 이어 오는 2008년 11월 5-9일(수-주)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두 번째로 창조과학학교를 개강합니다. 창조과학학교는 창조과학을 가장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중부지부에서도 9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시카고 휄로쉽교회에서 제 7차 창조과학학교가 매주 월요일에 열리고 있으며, 서부지역에 있는 장로교신학대학과 베데스다대학에서도 한 학기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거리 사역들

창조과학선교회의 사역을 가까운 곳뿐 아니라 먼 곳에서까지도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16-17일은 한인이 약 3000명 살고 있는 알라바마 주의 몽고메리에서도 창조과학 세미나가 진행 되었고, 9월에는 한국과 몽골에서 이재만 선교사가, 11월에는 C국에서 이동용 중부지부장의 많은 강의들이 예정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는 도구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하는 중등의 보다들이 어로 교비될 수 있는기나?



화론자들이 예상하는 바는 돌 연변이나 선택을 통해 새로운 동물 "종(species)"들이 형성 되며, 그 새로운 "종"들은 이제 다른 "종"과는 교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새로운 "종"들은 그들의 조상들과 같 은 분류 범위 안에 다시 들어갈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한다. 결국에 그 동물들은 교배가 되지 않아 서로간에 자손을 낳지 않게 된다는 것이 진화론자들의 종(species)에 대한 정의이다. 그러나 동물들의 종은 색깔, 모양, 크기, 피부 형태, 번식과정 등의 특징으로 결정되는 반면에 교배 가능성에 대한 사실은 자주 무시되고 있다.

성경은 동물을 분류할 때 "종"이 아니라 "종류(kind)"란 용어를 쓰고 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24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종류대로"라는 어구는 "종류"들간에 구별이 있고 각 "종류"는 자손 번식에 필요한 유전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구별은 "종(species)"이 아니라 "종류(kind)"로 된다는 의미로 보인다. 히브리말로 창조된 "종류"를 표현할 때 "bara(창조)"라는 말을 썼는데 무에서 창조한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이유로 많은 창조론자들은 동물들의 부류를 말할 때 "baramin (창조된 종류)"이란 단어를 쓰게 되었다.

지난 20여 년 전부터 발전해 오고 있는데 창조 연구의 중요한 분야 중 하나는 "종"의 분화가 진화론을 지지한다는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한가지 방법은 많은 "종"들이 서로 교배가 되며 자손을 생산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인데 이것은 진화가 예견하고 있던 바와는 거의 정반대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잡종 뱀: 창조된 "종류"의 다양성의 경우"라는 제목이 붙은 논문이 제 6회 창

조론 국제대회(Pittsburgh, 2008년 8월 3-7일)에 보고 되었는데 저자인 Glen Fankhauser와 Kenneth Cumming은 11 "종"의 뱀을 서로 교배시켜 자손을 얻는 데 성공했음을 보여 주었다.

그들은 독이 없는 여러 "종"들의 뱀 잡종 연구를 위해 자연적인 교배와 다른 "종"들을 구별하는 냄새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교배를 시켰다. 그들은 3 가지의 다른 "속"(종-속-과-목-강-문-계의 두 번째 범주)에 속해 있는 11 "종"의 뱀들을 사용하였다. 혼합 교배 결과는 자손의 색깔과 무늬가 부모 "종"들의 중간쯤 될 것으로 예상 하였으나 밴드 무늬가 얼룩무늬나 줄무늬에 비해 우성 형질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다양한 파충류들은 "속(genera)"에 상관 없이 검은 피부 색소인 멜라닌이 없는 색소결핍증(albinism)이 격세유전(alternative heredity: 유전형질이 한세대씩 건너뛰어 다음 세대에 계속 나타나는 유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alifornia Kingsnake와 Corn Snake를 교배했을 때는 자손 첫 세대에 색소결핍증 현상이 나타났고, 모든 형태의 잡종들은 살아서 자손을 낳을 수 있었다. 이 뱀들은 진화된 "종"들이 아니라 창조 된 "종류" 안에서 다양성을 보여 주는 예들임에 틀림 없다. 북미주에 서식하는 이 3 가지 "속"에 속한 뱀들은 생식적으로 격리 된 "속"으로 분류되지만 진화론적 생물학이 예견한 것 보다는 훨씬 더가까운 관계에 있는 것 같다.

이 연구는 창조된 "종류"를 인식하는데 기준이 되는 항목들에 생육 능력, 상동 유전자, 색소 변이를 추가 하도록 하였다. 진화론자는 가끔 파충류들이 잡종을

만드는 경우를 "종"의 온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돌발적이고 우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잡종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창조론자는 잡종을 인정할 수 있고 잡종의 존재를 창조자의 신성한 계획임을 설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성공적인 잡종의 탄생은 창조론 모델에 잘 맞지만 진화 모델에는 반대가 되는 것이다.

Larry Vardiman, Ph.D. ICR 연구 책임자 ACTS & FACTS 2008년 8월호



유학생 탐지수여행후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어떠한 곳인지 스스로 깨달 아 알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화석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표징이며, 노아의 홍수가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게 된 것을 이번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창조자 되시며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 이미 계시 되어진 자연의 신비와 만물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최정수, University of Illinois

세상의 과학 앞에서 역사 책에 불과한 성경이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통해, 얼마나 사실이고 과학적인지 보고 경험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학문을 공부하는 유학생으로 세상 학문에 둘러 쌓여하나님의 지식을 바로 알기 힘들었는데 이 기회로 세상 학문보다 우뚝 서고 그것을 초월하신 말씀이 얼마나 확고함을 경험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유학생 탐사여행 정말 중요합니다. 후원해주시는 서울 온누리교회와 얼바인 온누리교회와 이재만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정은영, University of Illinois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길 기도했었고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주님께 감사 드리며 찬양합니다. 크나 큰 비전과 도전 갖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진, Purdue University, Aero space Engineering

이전에는 그 분이 있을 것 같아 믿었지만 지금은 그 분이 계시기에 믿습니다! 아멘!! 김중재, Purdue University, 전자, 전기공학

저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는데도 확신이 없어서 그 부분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유학생 탐사여행을 통해 전부는 아니지만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김관희, Santa Monica College

지수함수 같던 나의 slow 곡선을 그리던 신앙에 갑작스런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준 창조과학 선교회에 정말 감사를 드린다. ... 그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끼게 된다. 바로 우리 의 하나님이 말이다! 송민철, L.A Valley College, 수학

저는 이번 유학생 탐사여행을 통해 노아의 홍수가 local flood가 아닌 universal flood란 사실

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크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끓을 수 밖에 없는 저를 보게 되었고 창조자이신 그 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 머리카락 하나 하나도 세신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 왔습니다. 서승윤, University of Illinois, Piano

이번 창조과학 투어는 노아의 방주 투어였습니다. 무엇보다 "창 1:31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던 처음의 그 모습을 잃고 있는 이 땅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Pre flood rock,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모습을 잃고 두껍게 덮인 인간의 죄 아래 눌려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제서야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것 임이요(마 5:4)". 강성관, University of Illinois

그 동안 많은 여행 중에 이번 유학생 탐사여행을 잊지 못할 것 같다. 모든 여행이 처음이라 미국의 자연을 감상하는 것에 그쳤으나 이번 탐사여행을 통해 자연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졌다. 그 동안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진화론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모순이 있음을 알고도 창조론과 진화론을 버릴 수 없었다. 더욱 더 확신한 것은 이번 여행을 통해서 창조론의 설득력을 확실히 믿으며 새로운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한 번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보았다. 박 목사, PCC

목사지만 과학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여 말씀을 전하면서도 실제를(증거를)제시하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번 탐사여행을 통하여 창조, 홍수의 확실한 증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 목사, 풀러 신학교

유학생을 위한 탐사여행은 차세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결코 없어져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이 탐사여행을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창조 그리고 증거 그리고 증인 이것이 내가 본 이 탐사여행의 가장 큰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는 계속되어 야 합니다. 황 목사, 풀러 신학교

This seminar was able to let me see the greatness of God. To see all of these amazing places brought this feeling of love from God that he made all of these things and let us live in this world. Shed light onto the things I questioned the most like the different races and how they came about. Also about how two people could populate the world like it is today.

안윤수, University of Southern Florida, Business Education

부정할 수 없는 성경 속의 하나님의 창조와 그 역사에 대한 생생한 증거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손 목사, 탈벗 신학교

사역일정

2008년 ACT Schedule

9/13

9/8-11/10 제7기 중부창조과학학교 (시카고 휄로쉽교회 월요일8-10pm, 847-845-5368), IL

휄로쉽 실버대학 (세미나 10:30-11:40am, 이동용, 630-400-6114), IL 9/11

9/12-14 독산동 교회 (세미나, 이재만), 본국

인랜드교회 청년부 수양회 (최우성, 909-802-5865), CA

9/17 두란노 본사 (세미나, 이재만), 본국

9/18 대구 성실교회 (세미나, 이재만, 053-752-5323), 본국

9/19 애일교회 (세미나, 이재만, 02-926-4941), 본국

9/20 기독 지질학과생 (세미나, 이재만, 02-419-6465), 본국

울산 주닮교회 (세미나, 이재만), 본국 9/91

몽골 국제대학교 (세미나, 이재만), 몽골 9/22-25

9/29-10/1 창조과학 탐사여행 (아버지학교 국제 컨퍼런스)

10/5-8 창조과학 탐사여행 (아버지학교 국제 컨퍼런스)

10/9 인랜드교회 중보기도학교 (이재만, 951-809-1000), CA

10/10-12 한마음 침례교회 (세미나, 이재만, 925-828-3219), CA

10/13-16 빙하시대 탐사여행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 713-789-5577) 10/23 인랜드교회 중보기도학교 (이재만, 951-809-1000), CA

10/31-11/2 뉴욕성결교회 (세미나, 이재만, 718-948-0339), NY

11/5-9 창조과학학교 시애틀 형제교회, WA

11/10-16 일본인 창조과학 탐사여행

창조과학 탐사여행 (생수의 강 선교교회, 562-653-0178) 11/17-19

11/21-24 현지교회 및 한인교회 (세미나, 이동용), C국

11/27-29 창조과학 탐사여행 (동양선교교회, 323-466-1234)

창조과학 탐사여행 (한빛교회 858-733-1129), San Diego, CA 12/25-27

6차 유학생 창조과학 탐사여행 (213-381-1390) 12/29-31

2009년

4/20-23 창조과학 탐사여행 (시카고 휄로십 교회, 213-381-1390)

5/11-14 창조과학 탐사여행 (MOM 선교회, 408-313-1527)

5/23-25 창조과학 탐사여행 (ANC, 213-446-2821)

6/15-18 창조과학 탐사여행 (한미준 강사 수련회, 213-381-1390)

9/5-7 창조과학 탐사여행 (온누리교회, 213-382-5658)

호 워 |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 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ACT



창조과학선교회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Office Address | 152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15 www.HisArk.com / hisark@gmail.com Tel. 213 381 1390